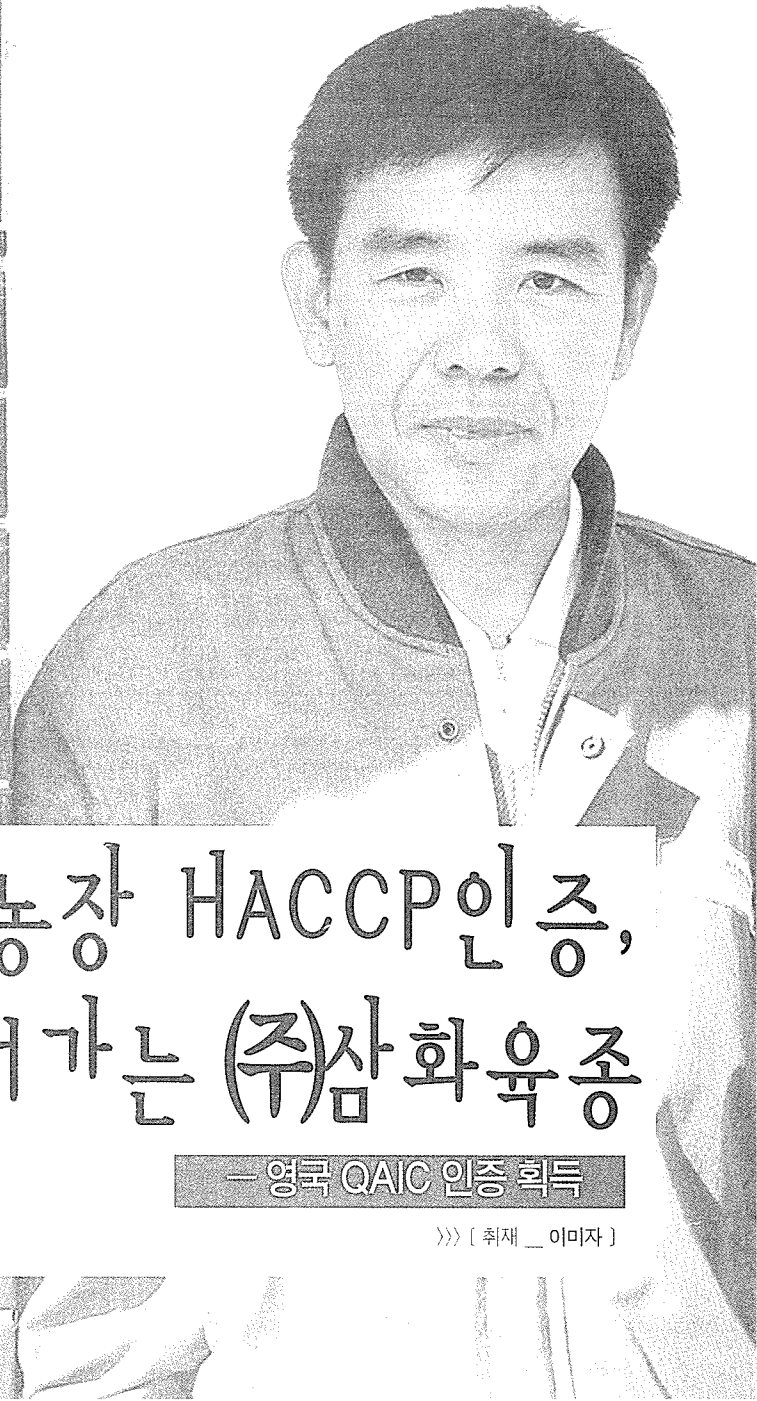


● 농장탐방 | 도드람B&F가 추천한 (주)삼화육종



돼지농장 HACCP인증, 한 발 앞서가는 (주)삼화육종

— 영국 QAIC 인증 획득

>>> [취재 _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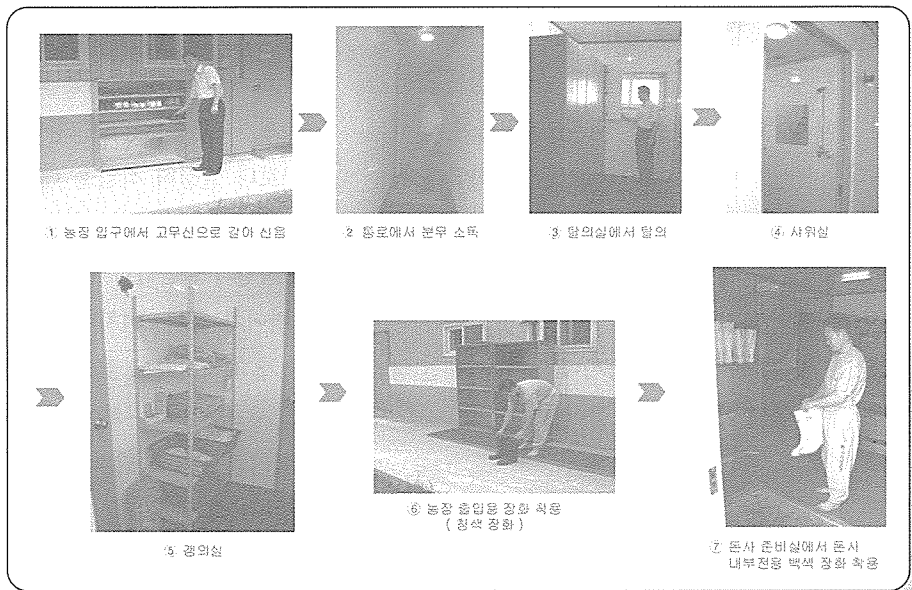
농 립부는 내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는 사육단계의 HACCP인증 도입을 위해 돼지농장부터 HACCP인증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올 2005년이 배합사료공장 HACCP인증제 도입의 원년이라면, 내년은 명실상부 농림부가 인증하는 농장HACCP인증제 도입의 원년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런 활력과 달리 농가에서는 사육단계에서의 HACCP인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돼지농장 가운데는 외국기관에서 수여하는 HACCP인증서를 이미 획득한 농장이 40~50여 군데가 된다. 이는 돼지농장의 수를 총 1만2,000여 호로 잡았을 때 약 3%정도에 해당한다. (주)삼화육종이 바로 이 3%안에 포함된 것은 지난 11월, 영국 QAIC는 (주)삼화육종의 다섯 개 돼지 농장에 대해 HACCP인증서를 수여했다. (주)삼화육종의 사육방식에 대해 그 위생상태를 인증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든 2,300두가 사육되고 있는 (주)삼화육종은 종돈전문 양돈농장이다. 번식농장과 육성농장의 두 사이트(2 site)로 운영중인 (주)삼화육종은 충청지

역 40~50호의 돼지 농장에 튼튼하고, 경쟁력 높은 종돈을 공급하는 내실 있는 육종회사다. 사실 (주)삼화육종은 원래 종계가 전문이었다. 외부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배성황 사장은 양계에만 30여년을 넘게 종사해온 전문가다.

(주)삼화육종이 종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주)삼화육종이 종돈사업에 갖는 관심은 종계 사업 못지않다는 것이 양돈사업부 김동진 이사의 설명이다. 철저한 all in-all out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주)삼화육종의 종돈사업은 세계최대의 종돈회사인 미국 화이트샤이어(Whiteshire)사와 역시 미국의 왈도팜(WaldoFarms)과 업무 제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내의 AI센터에서 끊임없는 개량연구로 결실을 맺는다. 현재 (주)삼화육종의 종돈 모계지수는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도다. 미



▲ 영국 QAIC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농장 출입이 더욱 엄격해졌다.



▲ 왼쪽부터 (주)도드람 B&F 인용식 부장, (주)삼화육종 김동진 이사, 안진국 차장

국종돈회사의 상위 10%와 맞먹는 정도라는 것이 (주)삼화육종 양돈사업부 안진국 차장의 설명이다.

(주)삼화육종에는 모두 4개의 직영 돼지 농장이 있다. 신죽농장, 은하농장, 대경농장, 낙동농장이 그것이다. 그 외에 곧 인수가 될 예정인 한 개의 농장이 더 있고, 협력농장으로 홍성과 보령 일대의 개인농장들과 관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은하농장은 농장 앞의 강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여, 올해 아름다운 농장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기도 하였다.

(주)삼화육종은 어떻게 영국 QAIC로부터 돼지농장 사육단계의 HACCP인증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다섯 개의 농장을 동시에 말이다. 우선 양돈사업부 김동진 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주)삼화육종은 모두 5개의 돼지농장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한눈에 파악하고, 또 사양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농장관리 직원들에게 체계적

인 업무를 할 있도록 하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다.”

(주)삼화육종은 농림부나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축산물의 안전, 위생이라는 개념에서의 HACCP인증제 도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육단계의 표준화, 시스템화라는 관점에서 HACCP인증제를 접근했다. 김동진 이사의 말에 따르면 거창한 대외적 이유보다, 실제적인 내부적 필요가 더 우선이었던 것이다.

(주)삼화육종이 HACCP인증추진 모드로 들어간 것은 2005년 2월 14일. 역시 첫 과제는 모든 직원들에게 HACCP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위해요소중점관리는 농장관리 실무자의 손끝에 달려있고, 그들의 동의와 실천 없는 HACCP인증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가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문서상의 체계가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매일 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교정하는 실천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

하지만 생소한 HACCP 체제의 도입은 직원들을 힘들고 지치게 했다. 우선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자체가 고역이었다. 그동안 손끝에서, 경험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문서화하다보니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농장사양의 불문법이 성문화 되는 과정에서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벤치마킹할 HACCP획득 농장의 문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는 (주)삼화육종의 독특한 사육환경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안진국 차장의 설명이다.

그리고 힘들었던 또 하나의 과정은 다섯 개의 농

장을 한꺼번에 진행해야하는 어려움과 혼돈된 개념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HACCP도 그러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용어들이 직원들 간에 혼돈을 자아 내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네 개, 다섯 개의 농장의 책임자나 직원들을 한꺼번에 모아, 회의를 성사시키고, 또 그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진국 차장의 말에서는 힘겨웠던 지난 시절의 옛볼 수 있었다.

“처음부터 HACCP이란 걸 염두에게 두고 시설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나 사양노하우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다보니 시설 투자 등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 하더라구요. -실제로 은하농장에는 20억이 투입되었다-이래저래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렸습니다.”

힘에 겨운 준비기간이 끝나고, (주)삼화육종은 드디어 HACCP인증서를 획득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변했다.

“스티커 정말 많이 만들었다”며 환하게 웃는 안진국 차장은 ‘스티커’ 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사실 ‘스티커’란 건 광고와 선전의 기본 장치다. 늘 일하던 곳이고, 늘 하던 일이지만, 여기저기 새로운 스티커

가 붙여지기 시작하면서, 직원들도 한 번 더 HACCP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손 소독기, 지역에 따라 갈아 신어야 할 장화, 에어타월, 온습도 관리기, 돈분 제거기, 방조망, 발판소독조, 분리수거함, 검교정된 측정기구, 정리정돈된 용구함 등이 새롭게 등장했고, 일상적으로 청소와 정리정돈이 생활화되었다. 농장 사무실 한쪽 벽에 밀착되어 쌓아두었던 사료들도 벽에서 적당거리를 떼어서 쌓아두었고, 포유모돈의 사료함도 모두 두껍을 철저히 덮어둔다. 사료빈에 흰색 인슐레드 도포를 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게 사소한 하나 하나의 변화가 모여 HACCP인증이라는 큰 산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자진하여 진통을 겪은 회사여서인지, 인근 지역에서는 각광받기 어려운 게 중돈회사라는 일반의 통념을 깨고, (주)삼화육종의 거래처는 대부분 인근의 지역 농장들이다.

“앞으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등지방이 지금보다는 약간 뚜껍고, 연산성이 높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개량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생산성을 강조하다보니 등지방이 많이 얇아졌지요.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동진 이사의 말이다.

한 발 앞 선 준비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주)삼화육종의 앞날이 기대된다. ㉟

